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주 개발 전략

곽호성*·박홍국**

목 차

- I. 서론
- II.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제주 개발 전략
- III. 결론

I. 서론

한국 최고의 관광지인 단연 제주도이고, 제주도의 관광수입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를 하와이·괌·발리와 비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지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경우 세계의 부유한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로 바뀌 보다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관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제주도 관광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도를 괌이나 발리와 맞설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지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제주 관광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제주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또 알려져 있더라도 세계인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¹⁾ 대중들은 ‘괌’을 연상하면 전형적인 태평양의 관광지를 떠올린다. 새파란 바다와 아름다운 섬의 장면을 생각한다. 누구라도 가보고 싶어 하며 한번 가면 나오고 싶지 않은 낙원을 연상하는 것이다. 이는 발리나 사이판도 유사하다. 반면 제주의 경우 아직 제주를

* 상명대 대학원 컴퓨터학과 박사과정

** 상명대 대학원 컴퓨터학과 교수

1) 제주일보 2005.7.18 ‘명예도민제의 확대’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지 못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제주에 입도한 관광객들로 하여금 제주에 오래 머물게 하고, 제주를 반복해서 찾게 하고, 제주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괌·발리·사이판·하와이·남태평양의 기타 관광지를 보면 그야말로 휴양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특히 하와이나 남태평양의 소국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자극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제주도의 문화는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세계인들은 하와이를 떠올리면 하와이 원주민 특유의 훌라 댄스를 바로 떠올리는데 제주도는 이름조차도 생소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인문과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문과학의 발전은 해당 국가의 관광산업이나 문화산업 기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가령 불문학에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그 작품 자체로 프랑스를 홍보하고 있고, 프랑스의 관광수입을 높여주고 있으며, 프랑스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계로 문화를 수출하는 것에 거의 무관심한 실정이다. 중국이나 일본 못지않은 정신문화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아직 한국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가 거의 5천만에 육박하고 국력수준이 세계 10위권임을 감안하면 노벨 문학상이 없다는 것은 한국의 인문학 풍토가 척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인문학 풍토가 척박하면 전 세계로 제주도의 신화를 알릴 사람도 없고, 제주도를 배경으로 문학작품을 만들 사람도 없으며,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제주도의 관광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한국인들은 그리스·로마 신화는 잘 알아도 한국 고유의 신화는 잘 알지 못한다. 한국의 문화상품 가운데 대표적인 게임의 경우 그야말로 국적불명의 상품이다. 물론 게임 상품의 해외 수출 때문에 보편적 문화를 고려해야 하고, 등장 캐릭터들의 인종 배분을 적당히 해야 하는 측면은 있으나 한국 문화상품에서 일본 게임이나 기타 일본 문화상품에서 느껴지는 꾸준한 일본 문화 소개와 같은 제치 있는 한국 문화 소개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기후 상 약점이다. 제주도는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고 비가 많이 온다.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에 있어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 이런 기후 상의 특징은 제주도를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지로 끌어 올리는 데 장애요인임에 틀림없다. 이는 제주 관광에서 상당한 무게를 실내 관광에 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네 번째 문제점은 한국의 높은 물가 때문에 제주 관광을 즐기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또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의 외국인들은 반드시 한국의 서울이나 기타 제주 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여객기가 있는 국가의 도시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법이다. 제주의 약점을 일단 직시하고 난 뒤에는 약점을 강점으로 오히려 전환하고, 제주도의 강점을 더욱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강점도 매우 크다. 일단 대표적인 강점을 세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이나 대만, 일본과 같은 잠재시장과 매우 가깝다는 점이 강점이다. 최근 제주도의 관광수입 실적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중국 관광객 증가²⁾가 있다.

두 번째 강점은 인터넷이나 IT산업에 있어 세계적 강국인 한국에 제주도가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나 IT산업을 제대로 응용하면 제주도를 시대를 앞서가는 「IT의 섬」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세 번째 강점은 제주도민의 학력수준이 높은 관계로 시민의식 또한 높아 낮은 비용으로 제주를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제주도를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한국 정부와 제주 지방정부, 제주도민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2008년 현재 세계는 극심한 경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제불황은 관광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 이는 관광산업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도로서는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불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세계 일류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연합뉴스 2008. 5. 14 '제주 관광, 바가지는 이제 그만'

II.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제주 개발 전략

1. 제주 사이언티픽(SCIENTIFIC) 아일랜드 건설 전략

제주도의 최대 약점은 세계에 제주도가 널리 소개되어 있지 못하며, 제주도로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만한 강력한 동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점은 제주도를 '과학의 섬'으로 개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제주도를 과학의 섬으로 개발하는 것이 제주 관광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의 기후 조건 때문이다. 제주는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 조건을 갖고 있다. 이런 제주의 기후조건을 극복하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오락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가령 유한김벌리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나무를 벌채해서 종이를 만드는 기업이므로 환경파괴기업이지만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광고와 광고 내용의 실천을 통해 환경보호기업의 이미지를 지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기후조건 때문에 옥외활동이 불편해 관광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약점을 최고의 실내 관광조건을 갖춰 극복하는 것으로 돌파하면 된다.

그래서 세계인들에게 최고의 과학기술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과학의 섬 제주 개발 주장의 배경이다. 또한 세계인을 열광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게임이다. 제주도를 게임의 섬으로 만들면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 것이다.

제주도를 과학의 섬으로 바꾸고, 제주도를 게임의 섬으로 바꾸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이고, 민간자본의 유치다. 국가재정으로부터 투입되는 예산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지금의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시키려면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하다. 즉, 각종 과학기술 시설 건설과 인터넷을 통한 제주 홍보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중요한 것이 제주도에 과학기술의 꿈을 키우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며 또 이공계 관련 고용을 늘려나가는 것

이다. 이공계 기피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공계 근로자들이 60세까지 생계비를 꾸준히 벌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이다. 지금은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이공계 위기에서 중요한 점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제주도를 과학의 섬으로 새로이 건설하고, 제주도에 서울대 공대를 이전하는 등 제주도를 한국 이공계와 관광·서비스 산업이 만나는 지역으로 육성하면 한국 이공계 고급인재들이 원하는 영속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

제주도에 건설되어야 하는 이공계 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스페이스 월드(space world)이다. 스페이스 월드는 일본의 우주 테마파크로 1987년 2월 일본의 新日鐵과 미국의 스페이스캠프재단인 나사(NASA), 그리고 일본의 스페이스 캠프 재단 간 계약으로, 1990년 4월 22일에 후쿠오카 현 기타큐슈 시(北九州市)에 문을 열었다.

스페이스월드에는 우주와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과 오락성이 높은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이스 월드는 일본 최고시설의 테마파크 시설을 만들기 위해 1999년 7월에 「treasure world」라는 신개념의 우주화산을 새로 건립하고 JR열차 역인 스페이스월드 역을 열어 배낭여행객과 가족여행자들이 한결 쉽게 스페이스월드를 찾아갈 수 있게 했다.

제주도에는 이런 스페이스 월드의 확대판인 사이언스 월드(science world)가 건립되어야 한다. 스페이스 월드가 우주개발 분야에 한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이언스 월드는 과학기술 전체를 포괄하는 시설이다. 우주·해양·물리학·생물학 등 과학기술 전체를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 이런 시설을 건립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아울러 한국의 이공계 열기를 진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도 과학기술 테마파크(theme park)와 연결해 생각할 수 있다. 해군의 무기와 함정 자체도 과학기술 테마파크의 중요한 볼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군의 심해 잠수사 양성과정이나 해군 함정 탑승, 해군 항공기 운항실습, UDT 훈련체험 등은 해외 관광객을 끌어 올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은 게임이다.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게임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게임 열기는 한국 뿐 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임에 대한 인기를 이용하면 제주도는 단번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다.

제주도에 최신의, 최고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를 설립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들 것이다. 게임에는 인터넷을 통해 즐기는 온라인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좀 더 실감나고, 좀 더 재미있는, 현실성을 극대화한 게임들도 많이 제작되고 있다.

제주도는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대회의 개최, 게임회사들을 위한 게임전시회 및 발표회, 아마추어 게임프로그래머들의 자작 게임 발표 이벤트를 지원해 주면 제주도를 전 세계 게임 동호인들의 성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게임 산업은 애니메이션 산업·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과 맞물려 있는 산업으로 제주가 게임의 중심지로 꾸준히 발돋움할 경우 애니메이션 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 영화산업 등 각종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볼거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한다. 즉,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테마파크화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소수의 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밀어닥치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짜증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볼거리가 전 제주 전체에 넓게 퍼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광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공항이나 항구 등과 같은 관광지원시설의 확대도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포화상태로 확장이나 제주 신 공항 건설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 관광수입을 크게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제주, 유럽에서 제주를 직항하는 항공편이 생길 정도로 제주가 발전해야 한다. 이것을 목표로 제주도의 공항을 확장하자면 당연히 제주도는 신공항을 건립해야 한다. 먼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객기를 생각하면 당연히 신공항은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장에 서서 공항 방문 직후 가장 편리하게 저렴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관광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해 제주의 초·중·고·대학에서 일제히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을 상대하는 제주도민들에게 강력한 영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길거리에서도 외국인들이 영어로 길을 물으면 적어도 40대 이하의 제주도민들은 영어로 답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제주 발전에 있어 영어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관광객들과의 의사소통 외에도 세계인들과의 온라인을 통한 소통 권장과 함께 제주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논문의 앞부분에서 언급한대로 한국의 경제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으나 더 이상 고도성장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제조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가령 세계인들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볼 때 자동차 이면에 숨어 있는 독일의 문화를 본다. 그렇지만 한국 상품의 경우 한국 상품 뒤에 숨어 있는 문화를 찾으려 해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 상품을 여전히 독일 상품보다 뒤떨어지는 촌스러운 상품으로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벤츠 승용차나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제네시스나 어찌 보면 질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인 들 조차도 부유한 사람들은 제네시스보다 벤츠를 선택한다. 벤츠가 더 격이 높아 보이고 더 안전하고 튼튼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국 문화에 대한 불신과 독일 문화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인 것이다.

하와이나 괌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어떤 형식으로든 소통하고 있다. 이는 다른 제주와 경쟁해야 할 관광지들도 유사하다. 그러나 제주도의 전 세계인들과의 소통 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³⁾

예를 들면, 제주도의 초·중·고·대학생들은 앞으로 더욱 많이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들을 접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제주도의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하와이나 괌, 혹은 남태평양의 휴양지들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미국·유럽·아시아인 등의 세계인들과 많이 접촉해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유럽인 등 세계의 부유한 이들의 휴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3) 제주일보 사설 2006. 6. 13 '제주도의 해외교류 신중해야'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물질적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와 같은 정신적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서로 통합시키는 것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공대와 제주대의 통합은 제주를 과학의 섬·이공계의 천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서울공대가 제주도로 이전하면 서울공대는 보다 낮은 비용을 들여 더 넓은 캠퍼스를 갖추게 될 것이다. 아니면 서울의 서울공대를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서울공대 제2 캠퍼스를 제주도에 건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제주는 따뜻하고,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공계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뿐만 아니라 본토와 떨어져 있는 속성 상 방위산업을 연구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하다.

또, 제주도는 관광 산업 하나로도 전체의 경제구조를 끌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참고 모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싱가포르·홍콩의 경우 관광 외에도 금융 산업이나 IT산업 같은 다른 산업을 또 다른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거나 이미 성업 중이다. 즉, 제주도가 제주도를 전 세계에서 하나 뿐인 과학의 섬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제주도가 관광산업 하나로 먹고 사는 단순한 경제구조를 탈피해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 명실상부한 싱가포르나 홍콩 못지않은 작지만 강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 제주 사이언티픽 아일랜드 홍보 전략

제주도 관광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홍보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관광 홍보 최대의 문제점은 제주도가 외국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설령 제주도가 외국인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해도, 다른 주변국의 관광지와 비교해 특별히 더 좋은 점, 뚜렷한 개성, 반드시 가봐야 할 이유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괌, 사이판, 하와이는 기본적으로 열대 기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열대 기후의 파란 바다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며 부유한 관광객들이 장기간 체류하며 휴양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열대 기후의 파란 바다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괌·사이판·하와이 모두 지역 원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을 상품으로 팔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열대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팜이나 사이판, 하와이처럼 해수욕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을 꾸준히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경관이 아름답다고는 하나 제주도 정도의 자연경관은 주변국의 관광지에서도 느낄 수 있다. 또 설령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구경하러 오고 싶어도 높은 물가와 방문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제주도를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접을 것이다.

제주도 홍보의 출발은 먼저 제주도를 널리 알리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제주도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대표 웹사이트 제주.com의 구축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의 제주도를 관광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도무지 무슨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할 지 알기 힘들다. 제주도청 웹사이트가 있으나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영문 페이지를 본다고 해도 영문페이지 접속버튼이 상단에 너무 작게 위치해 있어 찾기도 어렵다.

그러나 제주도 영문 웹사이트 역시 문제점이 많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볼거리가 너무 적다. 관광객들은 볼거리가 많거나 강력한 방문이유가 있어야 제주도를 방문한다. 그런데 제주도 영문 웹사이트의 관광명소 안내에는 제주도의 자연적 관광 명소 소개에만 머물러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대로 제주도를 과학의 섬으로 만들어 전 세계의 과학 동호인과 게임 동호인, 디지털 콘텐츠 동호인, 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을 불러 모으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도 웹사이트를 가장 빨리 알리는 방법은 제주도에서 반기문 UN총장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기증하는 것이다. 반기문 총장은 세계적인 명사다. 그의 전용 웹사이트에는 많은 이들이 접속할 것인데 거기에 제주도를 알리는 배너와 자료들이 붙어 있으면 세계인들은 자연스럽게 제주도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명한 한국인들을 활용해 제주도를 알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령 미국에서 유명한 박찬호 선수의 웹사이트를 제주도가 만들어 증정한 뒤 그 사이트에서 제주도를 홍보할 수도 있다.

그 다음은 세계적인 소설가들이나 한국의 유명소설가들을 후원해 제주도 소설을 쓰고, 이를 번역해 세계로 수출하는 방법도 있다. 영화 제작도 마찬가지다. 세계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제주도를 알아야 제주도 관광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니가타 현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일본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배경으로 유명해졌다. 제주도도 이런 식으로 문화상품을 이용한 관광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제주를 대표하는 웹사이트 역할을 해야 할 제주.com의 성공은 곧 제주 관광의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다. 일본의 북해도나 미국의 하와이는 물론이고, 마피아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까지도 세계에 많이 홍보되어 사실상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다. 제주도는 시급히 제주도를 대표하는 웹사이트 제주.com을 만들어야 하고 제주.com을 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제주.com만 보면 누구라도 제주도에 가보고 싶을 정도로 웹사이트를 구성해야 하고 세계 네티즌들에게 제주.com에 가보고자 하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제주.com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공짜로 제공하거나 유튜브의 경우처럼 독특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야후나 구글과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광고 단가가 비싸고 세계 네티즌들에게 몇 번의 광고로 장기간 기억을 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근본적으로 제주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널리 수출하는 것과, 제주.com을 내실 있는 포털사이트로 만들고 외국어를 잘하는 제주도민·한국인 블로거를 육성해 외국인 블로거들을 끌어 모으는 것, 앞서 언급한 대로 반기문 총장의 웹사이트를 제주도가 제작해 기부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

3. 제주 관광조건 개선전략

제주 관광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는 물가 문제다. 한국의 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 관광객들은 동북아 지역 관광 시 중국이나 일본 정도만 돌아본다. 한국은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특별히 볼만한 관광 상품이 없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문화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외국인들의 입국 욕구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도 내 물가를 강력히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을 위해 가급적 낮은 물가를 유지하되 부유한 외국인들을 향후 주요 target으로 삼아 제주도로 유치

해야 한다. 부자·여성·젊은이는 기분을 맞춰 주면 돈을 잘 쓴다. 부자-여성-젊은이의 교집합인 부유한 20-30대 젊은 여성이야 말로 제주도로 데려와야 할 제 1순위 여행 고객이다.

성형수술(혹은 기타 미용서비스), 게임, 각종 레저·오락 등의 여성들을 자극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가령 여성들은 모두 허영심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번쯤 공주가 되어 보고 싶어 한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단 하루라도 공주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면 많은 세계 여성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부자가 되는 것에도 관심이 많은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투자교육과 관광을 겸하게 하는 것도 상당한 호응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target은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부모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잘 쓰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과학기술 체험이나 게임을 상품으로 파는 것은 매우 유망하다고 생각된다.

또 식품의 위생 안전에 대한 불신이 중국 사회에 심각한 점을 겨냥해 부유한 중국인들을 제주도로 유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유한 중국인들이 한국의 제주도에 와서 장기간 요양을 하고, 최고 수준의 병원치료와 안전한 고급 식품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 교육과 관광을 하나로 묶는 일이다. 종래에는 교육과 관광이 서로 무관한 것이었으나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해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할 이 시기에는 교육과 관광을 하나로 보는 시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요즘과 같은 경제 불황시대에는 순전히 오락만을 위한 목적으로 관광여행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도를 과학과 문화의 섬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편리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모바일 폰을 통해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가장 저렴하고 좋은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길 찾는 법을 알려주는 등 모바일을 통한 관광안내 서비스는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떠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 관광과정에서 느낀 점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관광객들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교정하면 다음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제주도를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정리했다. 제주도는 분명히 아름다운 관광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자연환경만 갖고 앞으로 계속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는 없다. 새로운 서비스와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줘야 한다.

좋은 관광지들은 한번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한다. 괄이나 사이판, 하와이 등 기존의 유명관광지들은 방문했던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았다면 결코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들은 제주도 관광객을 한층 더 늘려 줄 수 있는 영업사원들과 다름없다. 이들이 한번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방문하도록 만들려면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제주도를 과학과 게임 나아가 「문화산업의 섬」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를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시킨 데에는 이광요 수상의 지혜와 굳은 리더십이 있었다.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나쁜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약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동남아 최고의 금융·경제중심지로 발전해 있다.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목표는 ‘제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달성’하는 식으로 간단명료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주 관광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이제는 단순한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성장을 겨냥할 때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상황의 전환을 이루려면 제주 관광을 관리하는 모든 제주인들이 마음을 합쳐 창의적인 발상을 내놓아야 한다.

제주도를 과학기술·게임·문화산업의 섬으로 만드는 것은 보다 많은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한국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완화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제주도를 세계 최고의 관광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관광지, 전 세계인 모두 한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관광지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제주국제협의회(1998), 21세기 관광산업과 제주관광의 미래, 제주: 오름,

송재호(2002) , 제주관광의 이해, 제주: 각

제주발전연구원(2004), PATA총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현창국(2000), 제주다워야 제주가 산다, 제주: 한울

최병길(2000), 제주관광의 정체성 변화, 제주: 제주대 관광산업연구소

양재동(1997), 제주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주: 제주대 관광산업연구소